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사회 만들고파”

●정찬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

오는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2회 힐링콘서트
법률자문·심리치료·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최선

“직장 내 부당하고, 임금체불, 성희롱 등 장애인들이 취업 후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설립된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찬훈(61·사진)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11일 “지난해 후원회 도움으로 연 콘서트에서 장애인근로자와 가족들,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할 것을 다짐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바쁜 일상 중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2회째다. 광주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장애인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취업 후 여러 문제에 노출됐음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전무한 상태였다. 정 센터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서울, 광주, 부산에 지원센터를 출범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발판으로 이듬해에는 대구, 경기, 대전에 센터가 문을 열었다.

정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있다. 임금 지연이나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따르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관심 밖이다”며 “센터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센터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북, 제주 등



을 아우르며 활동 중이다. 변호사·노무사·수어통역사·상담사와 함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법률자문, 심리치료, 재취업 지원 등을 돕고 있다. 그가 이러한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

근 일이 아니다. 정 센터장의 큰 아들은 30여년 전 세상에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었다. 내 아이만을 위한 돌봄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살아갈 사회의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해야겠다는 꿈을 품고 센터 설립과 함께 4년째 일에 종사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장애인들이 단순한 공동작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근로활동을 하며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 중 불가피하게 생긴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센터의 역할이다”며 “지속적인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한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세심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캐치프레이즈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가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문화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며 “센터가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광주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김대원 라마다 광주호텔 회장



BBS광주불교방송 제3대 신임 사장에 김대원(사진) 라마다 광주호텔 회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회장은 앞서 BBS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으로 추천됐다.

조선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회장은 신산(일선) 김씨 대종회 감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자문위원, 광주관광재단 이사, (재)광주관광협회 이사,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으로도 추대됐다.

김대원 신임 회장은 “광주불교방송의 설립목적과 방송이념에 맞게 초발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광주불교계의 숙원인 불교회관 건립사업을 완수해 광주불교방송을 불교회관으로 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7년 6월7일까지다. /최명진 기자

전남도 신종표 어촌지도사
수산양식기술사 최연소 합격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 “완도지원에서 근무하는 신종표(30) 지방어촌지도사 제129회 수산양식기술사 시험에 전국 최연소 나이로 단독 합격했다”고 밝혔다.

수산양식기술사는 수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 수산양식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신종표 지도사는 대학에서 수산전통학 전공을 시작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학생 연구원, 민간 어류 종묘생산양식장에서 근무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육종전북센터 연구원, 지자체 수산행정 공무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 어촌 현장 가까이에서 경험과 경력을 차근차근 쌓으며 성장한 신세대 공무원이다.

신종표 지도사는 “선진 수산양식 정책과 실용적 양식기술을 더욱 공부하고 습득해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보람아동센터 ‘NIE 2차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8일 광주 북구 보람지역 아동센터를 방문, 신문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

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집수리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는 “최근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명동 독거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자유총연맹의 100만원 상당 후원금과 회원 10여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으며 대상자 선정은 동명동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현장 방문, 대상자 상담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대상 가구는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저소득 홀몸 노인세대로 곰팡이와 습기 등 취약한 실내 환경으로 호흡기 질환 발생이 우려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오염된 도배지를 제거하고 습기방지 벽지로 교체했으며 집청소까지 맡겼다.

전재혁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장해 드린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소외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는 주거환경 개선, 후원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대, 김혁중 전 총장 1주기 추도식 거행

고(故) 김혁중 광주대학교 전 총장의 1주기 추도식이 지난 9일 광주 남구 진월동 선영에서 거행됐다.

11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김동진 총장 등 유가족과 노진영 이사장 등 대학 구성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훈·윤영덕 국회의원,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현철 금호고속 사장 등 대학 발전과 지역민의 평생교육에 일생을 바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각계각층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한규무 교무처장의 사회로 고인의 약력 소개, 생전 육성 청취, 내·외빈 추도사, 가족 인사, 헌화에 이어 호심미술관 추모전 관람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장남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고인의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준 모든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대학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인의 업적과 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총장이자 장남으로서 학교 발전과 가문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도식 이후 추모객들은 광주대 호심기념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김 전 총장의 부인이자 광주대 교수인 송숙남 작가의 15번째 개인전이자 서거 1주기 추모 전시회인 ‘맞아요 블루’ 작품을 관람하며 김 전 총장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김 전 총장에 대한 기억을 담은 회화와 주얼리, 사진 40여점을 비롯해 40년 간 동반자로 살아온 송 작가가 부군을 향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지난 1년 동안 써온 글과 유학시절 주고 받은 편지 등을 선보인다. /김대기 기자

무안 해제면, 통합사례관리 대상 여름 물품 전달

무안군 해제면은 “최근 통합사례관리 대상 등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름나기 꾸러미는 선풍기와 두루마리 휴지, 즉석 조리식품, 두유, 제철 과일 등 10종의 생필품과 식품으로 구성됐으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3가구에 배부됐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양간리·102세)은 “매년 감사하다”며 “여름 물품까지 챙겨줘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해제미 해제면장은 “이번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가 예상되는데, 외출이 힘든 독



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여수해수청 학습동아리 ‘등대지기’, 보육원 봉사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로표지과에서 운영하는 연구·학습 동아리 ‘등대지기’가 관내 보육원(여수아이꿈터)을 찾아 제조작업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부터 여수아이꿈터 보육원과 인연을 맺었으며 항로표지와 직원들이 보육원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나눔문화 확산에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이웃을 도우며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남부대 치유향기사업단 ‘이·미용 공모전’ 전원 수상

남부대학교 치유향기상용화사업단은 “최근(사)한국뷰티산업개발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제올림픽위원회한국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제8회 Bis 국제 이·미용 기능경기대회&2023 소상공인 이·미용 공모전’에 참가해 전원 수상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학·석사 학생들은 뷰티아트부문 피부미용(등관리, 발관리) 분야에 출전했고, 박은주(교육대학원 5학기)는 심사위원으로, 정숙희 교수는 피부미용 심사위원장으로 각각 참여했다.

정숙희 단장은 “향장미용학과 학생들이 축적



한 대회 준비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휴일도 쉬지 않고 배우고 연습한 열정의 결과를 얻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화장품피부미용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국립대총장협회, 전북대서 올해 2차 회의

전남대학교를 포함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최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회장인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관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에서는 같은 날 7주년 개교기념식이 열려 정성택 총장 대신 김은일 교학부총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초등 교원양성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편입학 허용 ▲코로나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외국인 유학생 재정보조 개선 방안 ▲국립대학 적립금 관련 예산과목 신설 등을 논의했다. /김대기 기자

부음

▲김정순씨 별세, 김명호(전 별교상고 교장)·김성도(전 aT제주본부장)·김명진(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씨 모친상, 강옥균(재미·의사)·윤귀한(군세법인 탐스 대표)씨 장모상, 김우현(일본 요코하마 타이어 부장)·김석현(수주 건축사무소 대표)씨 조모상=발인 12일(월) 오전 9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실(062-527-1000). ▲김순영씨 별세, 박재홍(주영무건설 회장)·박한택(주TG영무 대표)씨 모친상=발인 13일(화)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매일동 VIP장례타운 VVIP 201호(062-521-4444).